

## 원자력 산업인의 긍지를 갖고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을

한승수  
국무총리



“

**2030년이 되면 국제 원전 시장은  
7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100% 자립을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  
를 가해 본격적인  
원전 수출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유리 소콜로프 IAEA 사무차장, 원자력 관계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원자력 발전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세대에 걸친 우리의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의 신기원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6위의 원전 선진국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기를 건설했고, 이제는 우리 전력의 36%를 원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sup>1)</sup>

우리는 또한 원전 이용률 90% 이상, 고장률 연간 0.5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최신 시공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였고, 2015년까지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자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말그대로 원전 일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원전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

1) 원별 발전량('07년, %) : 원자력 35.5, 석탄 38.4, 가스 19.5, 석유 5.3, 수력 1.3

목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온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일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sup>2)</sup> 석탄, LNG를 비롯한 다른 연료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무 부담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 사용을 더욱 제한하거나, CO<sub>2</sub> 배출권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단했던 원전 건설을 다시 시작하고, 중국도 원전 30기의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원전의 비중을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전이 저렴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써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세계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에너지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4개국을 방문해서 자원·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우라늄 5천740톤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

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원전이 1년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우리 원자력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원자력 발전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30년이 되면 국제 원전 시장은 7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100% 자립을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 본격적인 원전 수출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전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자력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원전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완벽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후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방안에도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예상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원자력은 단순히 전력 공급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원자력 산업인의 긍지를 갖고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 국제유가(두바이유) 상승추세 : \$89 ('08.1.2) → \$100 돌파(3.14) → \$129 (5.22)